

소식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인천소식

김주희
인천일보 기자

노동미술전시회 <노동미술굿>을 개최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인천지회(이하 인천민예총)가 인천과 부천, 광주 등지를 돌며 노동미술전시회 <노동미술굿>을 개최했다. 지난 1일 부천에서 시작한 <노동미술굿>에는 김강, 김성건, 김윤환 등 19명의 민중미술가들이 참여했다. 이어 인천에서는 9일부터 인천종합문예회관 전시실에서 1주일간 진행한 뒤, 오는 10월 25일 전남 광주를 찾는다. 또 15일에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전시공간 '해시'에서 전시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고 노동미술 전반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벌였다.

한편 인천민예총은 8일부터 11일까지 부평공원과 부평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인천노동문화제 '경계, 그 너머와 사이'를 개최했다. 이번 노동문화제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위를 통해 비정규직을 포함한 이주 실업 여성장애 등 불안정한 노동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새로운 세상을 노래했다. 노동문화예술단 '일터'의 노동연극 <아름다운 연대>를 비롯해,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 통합놀이 워크숍 <마음으로 그리는 연극> <노동가요 콘서트> <발언대>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인천출신 극작가 함세덕

<동승> <낙화담> <무의도 기행>의 극작가 함세덕을 재조명하는 학술심포지엄이 2일 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함세덕은 극단과 비평가들게겐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주옥같은 작품을 남겼지만 친일, 월북의 행보로 역사적 평가에서 배제됐

던 인천 출신 극작가다. 학산젊은연극제 준비위원회가 개최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함세덕의 문학과 이데올로기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이 10월 2일 오후 1시 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에서 열린다. 함세덕의 생애와 인천, 함세덕의 친일성, 해방기의 함세덕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학술논문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김창문 지역 언론 평론가는 '해금 후 함세덕 관련 사업의 역사'라는 조사활동 보고를 통해 "함세덕은 초창기 친일과 월북으로 인해 한국회곡사에서 외면 받았으며, 해금 이후에도 학계와 출생지 인천에서도 초창기의 평가가 그대로 이어져 왔다"며 "이제는 그의 회곡을 발판으로 공연의 활성화와 비평을 통해 함세덕의 현재적 가치를 따지는 일에 인천 연극 문화계가 매진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함세덕의 어린이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는 작품 <닭과 아이들>이 어린이들의 힘으로 재구성돼 무대에 올랐다. 박은희 전 인천시립극단 예술감독의 지휘로, 옹현 4동 성당 시민교육연극센터 어린이들이 작품을 만들었다. 청소년 제작 지원 연극 <무의도 기행>도 5일과 6일 이틀 간 인하대에서 공연했다. 무의도 기행은 인천 부근 작은 어촌을 배경으로 두 아들을 잃고 딸마저 중국 유곽에 팔아 넘겨야 했던 가난한 어민 일가족의 고달픈 삶은 담은 작품. 인하대 인하극회가 이를 현재의 젊은이들이 겪은 현실과 이상의 갈등으로 재해석해 무대에 올렸다.

학산젊은연극제의 일환으로 개최한 제1회 함세덕 회곡상 당선 가작에는 김동기의 <황소, 지붕 위로 울리기>가 선정됐다. 당선작은 나오지 않았다. 학산젊은연극제 준비위원

회가 젊고 뛰어난 극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7월 11일부터 30일까지 함세덕 회곡상을 공모, 접수한 74편의 작품에 대한 예심과 본심을 거쳐 김동기의 작품을 당선 가작으로 뽑았다. 김동기의 <황소, 지붕 위로 울리기>는 부부간의 미묘한 갈등과 애증을 가깝게 묘사한 작품이다. 심사위원단은 "재미 있고 템포가 빠르며 재치 있고 유머러스한 대사의 운율이 매우 세련된 점이 큰 장점으로 뽑혔다. 일인다역의 변신연기는 연출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극적 재미를 부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제4회 상하이-인천 수채화교류전

한국과 중국 수채화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양국 화단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전시회가 인천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10월 2일부터 8일까지 인천종합문예회관 대전전시실에서 열린 <제4회 상하이-인천 수채화교류전>. 인천수채화연구회(회장 이철명)가 주최한 이번 한중교류전은 인천의 중견 수채화 작가 24명과 중국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수채화가 30여 명이 총 80점의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철명 회장은 이번 교류전과 관련 "인천의 청관(현재 인천시 중구 신포동 일대)은 바로 국내 수채화의 첫 출발점이었던 곳으로 우리나라 근대미술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며 "한중교류전은 바로 이 같은 인천미술의 과거를 되찾고 양국의 활발한 미술교류를 위해 함께 발전해가자는 취지에서 개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의 중견작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 회장을 필두로 박승우 한풍렬 박동진 박치성 고진한 유재민 최운규 김준식 등 24명이 인천지역 수채화의 진수

를 펼쳐보았다.

중국 또한 전국 최대의 회원을 자랑하는 상하이 수채화협회원 208명 중 업선된 작가 30명의 작품 40점을 내놓았다. 특히 중국 측은 일반적인 풍물화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감각을 살린 반구상 작품들이 많아 중국 화단의 최근 변화를 접할 수 있다.

조각가 김승환의 17번째 개인전

인체조각만을 고집하며 얼굴과 표정을 통해 영원을 향한 숭고미를 모색해 온 조각가 김승환(인천가톨릭대학 교수)의 17번째 개인전이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인천 신세계 갤러리에서 열렸다. 김승환은 이번 개인전에 인체의 두상과 손, 그리고 곤충들을 소재로 한 작품 14점을 내놓았다. 브론즈와 스테인리스 스틸, 혼합재료 등으로 빛낸 작품들은 인간에 대한 탐구로 시작된다. 눈에 보이는 실체로부터 오는 미적 탐구라는 고전적인 주제는 철저히 외면한다. 명상적이면서 종교적인 분위기가 강한 작품들은 어딘가 모자란 듯 하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미완의, 비정형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거기에는 이야기가 있다. 칠레 이스터섬의 모아이상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두상은 거인적인 존재에 대한 시각적 압박감과 함께 형태의 극대화에서 생기는 개체의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새삼 상기시켜준다. 반면 손바닥 크기의 조각상을 감싼 축소된 공간은 우리자신을 일순간 거대한 존재로 만드는 미술을 발휘한다. 비정형적인 인물 조상은 현대인의 정신적인 불구를 상징하고 있다. 어딘가 부족한 듯 보여야만 마음을 여는 현대인들의 초상을 그리고 있다. 온전치 못한 형태는 연민을 낳는다. 그의 인물 조상들에게서 느끼는 감정은 실제성을 파기하는 데서 생기는 불안감과 그 뒤를 따르는 연민이다.

제11회 인천광역시 학생서예대전의 수상작

(사)한국서예협회 인천광역시지부(지부장 최규천)가 주최하는 제11회 인천광역시 학생서예대전의 수상작이 확정됐다. 인천지역의 초·중·고교생 604명이 참가, 시종 치열한 경쟁을 펼친 가운데 종합대상은 고등부 김슬기(육련여고 1)학생이 차지했으며 부문별

대상에는 고등부 조율림(부평여자공고 2), 중등부 박인혜(육련중 2), 초등1부 장수영(석정초 2), 초등2부 홍혜민(가석초 6)학생 등이 각각 선정됐다. 서예협회는 오는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수봉공원 인천문화회관 소전시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수상작품들은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7일간 일반에 공개한다.

전국청소년 연극제 인천지역 예선전으로 열린 인천청소년연극제에서 육련여고 연극반의 <내 푸른 일기장>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인천청소년연극제는 지난 8월 27일 수봉공원에서 개막, 13일간 인천지역 17개 고등학교 연극반 학생들이 경합을 벌였다. 대상 수상작인 육련여고의 <내 푸른 일기장>(유창수 작)은 입시지옥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심사위원단 신용우(서부교육청 장학사) 위원장은 “연출과 연기, 무대 세트 등 연극 전반에 걸쳐 조화를 이룬 작품으로, 대사와 움직임 등 학생들의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다”며 “특히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희망적인 면에서 잘 풀어가고, 그들의 정서와 마음을 느낄 수 있어 대상작으로 선정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연극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

인천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연극배우들이 ‘극단 감동-느낌과 움직임’이란 이름으로 뭉쳐, 10월 17일부터 씨아리 소극장에서 연극 <옥수동에 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를 무대에 올렸다. 연출자와 스텝, 출연진들은 모두 서로 다른 극단에 활동하는 젊은 연극인들로 극단 감동은 작품 활동을 위해 구성된 극단 일뿐, 일종의 ‘연기자 그룹’인 셈이다. 연출을 맡은 박기순 씨는 “멈춰서버린 듯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인천 연극계에 자극을 주기 위해 젊은 배우들이 모여 작품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제대로 된 작품으로 승부를 건다는 각오에서 연극계에 만연돼 있는 할인권이나 초대권을 일절 배포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사랑티켓을 통해서만 관객들에게 할인혜택을 준다.

인천조각가협회의 22회 정기전

인천에서 유일한 순수 입체조형 작가그룹인

인천조각가협회(회장 이찬우)의 22회 정기전이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인천종합문화회관 중앙전시실에서 열렸다. 지난 84년 인천조각 15인전을 시작으로 인천지역 조형 예술의 발전과 확산에 노력해 온 협회는 매년 정기전을 통해 조각의 세계를 일반에 알리는 데 주력해왔다. 올해로 22회를 맞는 이번 정기전 역시 작가 각자가 추구하는 다양성과 재료 및 표현방식의 독특함이 묻어나는 작품들로 구성, 조형예술만이 지닌 독특한 아름다움과 다양성을 선보일 전망이다. 이찬우 회장은 “미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르의 미술이 공존하며, 발표기회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협회의 정기전은 바로 이 같은 시각에서 볼 때 인천미술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조각전의 의미를 밝혔다.

경기소식

류 주선
경인일보 기자

사회 소수자 끌어안은 사회문화제

의정부예술의전당, 의정부시사회복지협회의,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 등 3개 기관은 이주 노동자, 혼혈인, 장애인, 트랜스젠더 등 사회적 소수인을 끌어안은 사회문화제를 공동주최한다. 10월 1일과 2일 이틀간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여는 ‘더불어 사는 사회문화제’는 사회적 약자에 포함되는 사람들과 일반인들이 어우러져 문화를 향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1일에는 소수인들의 삶과 바람을 담은 사진과 다큐멘터리가 소극장과 전시회 등에서 선보이고 장애인 피아니스트와 트랜스젠더, 혼혈인 등이 함께 꾸미는 음악 공연과 시낭송회가 열린다. 2일에는 복지시설을 떠나 자립생활을 하면서 험난한 여정을 헤쳐나가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을 마당극으로 만든 <동글 어진다는 것은 낮아짐입니다>를 공연한다. 이밖에 의정부지역 복지시설 원생들의 핸드벨 연주, 스포츠 댄스, 연극도 공연된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문화제를 통해 소수인들도 일반인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섬유미술가, 장혜홍 씨 개인전



수원에 거주하는 섬유예술가 장혜홍(45, 여) 씨가 8년 만에 국내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에 소재한 대안공간 '눈'에서 열린 장혜홍 씨의 7회 개인전에선 그가 8년째 지속하고 있는 '黑-Black project'의 중간결산 편을 선보였다. 작가가 흑색에 주안점을 둔 것은 모든 색을 수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 장씨는 '동-서양의 인간 정서 합일점을 찾을 수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우리 전통 오방색의 하나이면서 모든 색을 받아들인 흑색을 착안했다.

새로운 오케스트라 운동, 수원에서 시작

청소년오케스트라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기악 교육을 받은 자녀들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수원에서 이 같은 오케스트라와는 전혀 다른 '지역 오케스트라 운동'이 시작됐다. 지역오케스트라협의회(공동대표 최재철 수원고등동성당 주임신부, 이종선 대한성공회이천교회 관할 사제, 김철곤 경기청소년오케스트라 지휘자)는 9월 6일 수원청소년센터 은하수홀에서 저소득층 어린이 40명으로 구성된 '팔달 자유오케스트라'를 창단했다.

이들은 기악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어린이들로, 이날부터 연습을 시작해 내년 9월 창단 1주년 때 제1회 정기연주회를 가질 계획이다. 지난 6월 결성된 지역오케스트라협의회는 문화향유능력이 개인은 물론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력의 차이 때문에 차세대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큰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지역사회가 육성 하자는 취지로 구성된 자발적 모임이다.

앞으로 평범한 시민이 주도하는 '자유오케스트라'를 경기도내 각 지역별로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한편, 교육시스템을 통일하고 지휘자 등 지도자를 육성해 지역민에 의한 문화 활성화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오케스트라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지역 문화 기관과 단체도 힘을 보태고 있다.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송태호)이 연 1천 200만 원을 지원키로 결정했고, 수원청소년문화센터(관장 송기출)는 연습실과 은하수홀 등 공간을 제공한다. 또 (사)경기민예총(회장 김영기)은 200만원을 기부했다.

실학축전2005경기

실학을 생활문화로 풀어 오늘에 되살리는 '실학축전2005경기'가 오는 10월 13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유적지에서 개막, 이달 23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과 실학축전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리는 행사. '실학을 풍류로 풀고 생활로 깨달아오'라는 주제로 실학 3인 시서화 풍류전, 신나는 열하일기 체험, 무예 24기 시연을 비롯해 거중기 체험, 온실체험, 율희매 만들기 등 조순후기 실학을 느낄 수 있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또 다도, 시서화, 악가무, 풍류학교가 열리고 밥살림먹거리장터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정보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밖에 올해 200주기를 맞은 연암 박지원, 초정 박제가의 사상을 재조명하는 국제 실학학술회의가 10월 12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강원소식

홍호선
경인일보 기자

2005강원아트페어

강원도에도 미술시장이 열렸다. '2005 강원아트페어(GAF-2005)'다. 한국미술협회강원도지회가 강원아트페어조직위원회(위원장 권대영)를 구성해 창설한 제1회 강원아트페어가 지난 9월 9일부터 28일까지 원주 치악예술관에서 열렸다. '2005 강원아트페어'는 미술계의 변방으로 인식되고 있는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열린 미술건본시장이자 고품격 미술축제였기에 의미를 더했다.

'강원의 미감(美感)을 찾다'를 주제로 한 이번 아트페어는 도내는 물론 출향작가를 초청, 강원미술의 다양한 현상을 한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는 기회였다. 원로작가에서 신예작가에 이르기까지, 강원도가 지니고 있는 미감(美感)과 미의식을 풀어내며 국내 외에서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작가들을 초대했다. 또한 미술시장인 만큼

관객들이 현장에서 직접 마음에 드는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강릉출신 미술평론가 김복영 홍익대학교수는 "강원도의 자연, 문화, 역사에 내재된 미감을 조형언어로 표현하고 이를 한 자리에 결집시킨다는 의미의 아트페어아말로 강원도만이 일구어 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된다"고 격려했다. '2005 강원아트페어'는 페어전-강원 미술 20인20색, 테마전-강원의 미감(美感)을 찾다 특별전-국도 7호선전 강원 포스터 공모전-아름다운 강원도와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으로 구성됐다. 아트페어 기간 전시장 복도에 박수근 화백 영인본 작품 19점을 전시하며 화백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코너도 선보였다.

페어전-강원 미술 20인20색 초대작가 이은식 한기주 이상섭 김한구 김진열 최법진 최웅건 양현숙 김영규 유병훈 박석환 이재길 홍석창 김아영 정숙자 황효창, 안호범 김기복 양재건 이광택(부스 순)

테마전-강원의 미감(美感)을 찾다 초대작가

김용원 신철균 박마리아 한범구 최애주 한영호 남경호 김진길 최홍림 선학군 원인종 박명수 이용환 박동국 임근우 전태원 김영중 구자근 정숙진 김명숙(부스 순)

제7회 효석문화제

제7회 효석문화제가 지난 9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이효석 생가와 가산공원 물레방앗간 등이 재연된 효석문화마을을 주무대로 펼쳐졌다. 가산 이효석(1907~1942)이 소설 『메밀꽃 필 무

럽』에서 묘사했듯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릿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인 정경 속에 펼쳐진 올 문화제는 전국에서 57만 여 명이 행사장을 찾아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문학 축제로 자리 매김 했다.

극단 유시어터는 효석문화제 기간인 9월 2일부터 11일까지 매일 오후 7시 메밀꽃밭 속에 마련된 달빛극장 야외무대에서 셰익스피어 원작 희극 〈한여름 밤의 꿈〉을 공연했다. 또 달빛극장 ‘바람카페’에서는 연극공연 기간 문학이야기와 소품 위주의 클래식음악회가 열리며 관객이 직접 연극에 사용된 의상을 입어보는 ‘새날이터’ 유시어터에서 그동안 공연했던 포스터를 보여주는 야외 전시 공간 ‘쌔갤러리’ 마을 부녀회가 현장에서 직접 만드는 메밀음식을 맛 볼 수 있는 야외식당도 함께 운영했다.

강릉 '경포 달맞이 축제'

강릉 경포호는 예로부터 ‘달이 다섯 개가 뜨는 명소’로 전해오고 있다. ‘하늘에 뜬 달’ ‘경포호수에 비친 달’ ‘경포 바다에 띄운 달’ ‘술잔에 담긴 달’ ‘님 눈동자에 뜬 달’이다. 강릉민예총이 추석을 맞아 지난 9월 18일 강릉경포호수 일원에서 ‘경포 달맞이 축제’를 펼쳤다. 이날 달맞이 축제는 경포호 주변인 초당동 허균 생가 터에서 다례연을 시작으로 가장행렬, 달등뛰우기, 달맞이 연극, 아리랑창곡, 청소년장기자랑 달 한시낭송, 사공의 노래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이어 달이 떠오르는 시간에 경포호 특설무대에서 펼쳐진 시민참여 한마당은 강릉출신 개그맨 심원철 씨의 사회로 문재선 씨의 달맞이 퍼포먼스, 안경훈 씨의 해금산조, 대금독주 청성곡 현대레, 강세영 씨의 소리 ‘달맞이 가세’, 권명옥 교방무, 강릉민속음악원의 사물놀이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져 한가위 밤을 정겹게 장식했다. 또 가수 김태곤 씨의 무대도 마련돼 가을밤의 정취를 더했다.

강원소리 서울 공연

춘천에 정착해 활동하고 있는 경기민요 이수자, 이유라 씨가 지난 9월 11일 오후 7시 30분 서울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강원소

리를 펼쳐 보였다. (사)강원소리진흥회를 창립, 이사장을 맡아 예부터 강원도에 전래됐던 소리를 찾아 전승하는 일을 해오고 있는 이씨는 이날 ‘강원도 아리랑’을 타이틀로 질박한 강원도 소리를 풀어내 ‘사라져가는 민초들의 소리에 희생의 기운을 불어넣었다’는 호평 받았다.

강원인들의 염원인 2014동계올림픽 평창 유치에 지원하는 무대로 마련한 이날 공연에서는 한민족 아리랑의 시원(始原)인 ‘정선아리랑’ (도무형문화재 제1호)를 비롯 ‘강원도 아리랑’ ‘평창아리랑’ ‘뱃목아리랑’ ‘춘천아리랑’ 등 도내에서 발굴된 아리랑을 들려줬다. 또 강원도를 상징하는 ‘금강산타령’ ‘양구엘레지타령’ ‘양양검불날리는소리’ ‘원주동개동개요’ ‘횡성군밭타령’ ‘태백사시랑이소리’ 등 지역에 전래되던 우리 소리를 한자리에서 들려줘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강원소리진흥회원 및 유라예술단 실내악단 60여 명이 평창군 미탄지역에서 즐겨 부른 ‘평창아리랑’을 부르며 태극기와 2014동계올림픽 평창 유치의 염원을 담은 깃발을 휘날리며 대미를 장식했다.

충청소식

이현숙
충청투데이기자

서원 가야금연주단 창단

서원대 음악학과 박현숙 교수가 지난 10년 동안 배출한 제자들을 모아 ‘서원가야금 연주단’을 창단했다. 단장에 박현숙 교수를 중심으로 악장에 이지연, 부악장에 김정기 등 총 25명의 단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가야금 연주단 창단은 가야금이라는 하나의 전문악기뿐만 아니라 연주단을 구성했다는 점이 전국에서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특히 젊은 연주자를 수혈해 가야금 불모지나 다름없는 척박한 지역에서 명실상부한 가야금 악단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서원가야금연주단은 9월 7일 오후 7시 30분 청주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창단연주회를 가졌다. 이번 공연은 농음을 만들어내는 가야금의 전통곡과 유연한 소리를 현대적인 음악어법으로 재해석하는 창작곡을 곁들

여 국악의 참맛을 전해줬다. 연주곡목은 죽파 향제풍류, 김죽파류 산조합주, 도라지 3중주, 영천 아리랑과 옹헤아,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을 들려줬다. 연주곡 가운데는 도라지와 아리랑 등 우리 귀에 익숙한 곡들과 함께 황병기 씨가 편곡한 베토벤의 곡을 가야금의 선율에 담았다. 단장인 박현숙 교수는 “그동안 대학에서 배출한 제자들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들의 음악적인 역량을 한데 모으고 싶었다”며 “이번 창단을 계기로 사제시간의 결속을 다지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활동과 홍보를 통해 가야금 연주발전에 한층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국공예중부권 조망전

청주 한국공예관이 개관 4주년을 맞아 〈한국공예중부권 조망전〉을 9월 6일부터 25일까지 한국공예관 전시실에서 선보였다. 이번 전시는 충청권 지역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중견 공예인들의 최근작이 선보임으로써 우리 현대공예의 흐름과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전시다. 특히 충청권 지역 공예의 현주소를 가늠하는 이번 전시는 유리공예, 금속공예, 도자공예, 섬유공예 등 재료와 기법 면에서 다양한 작품의 경향을 감상할 수 있다. 참여작가는 고승관 유해철 광태영 김만수 이미재 장기영 등 32명이 작품을 내놓았다. 전시작들은 오브제 작품, 설치작업, 환경도에 등 첨단적인 형태로 표현영역을 넓혀가는 현대적 감각의 공예에서부터 전통소재를 활용한 작품에 이르기까지 공예의 변화과정과 현주소를 보여줬다. 특히 이번 기획전은 기존 공예에서 탈피, 기능과 형태, 문양면에서 변화를 시도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어 예술적이고 조형적인 측면을 한층 강조했다.

청주CDH 무용단 창단

청주지역 젊은 춤꾼들이 CDH무용단을 결성하고 오는 12월쯤 창단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단원은 회장인 성민주 씨와 부회장이 이재란 씨를 중심으로 15명으로 구성됐다. CDH무용단은 단원 모두가 청주대 무용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 춤꾼들로 춤 실력 못지 않게 수준도 높아 기대를 모은다. 분야도 한 장르만이 아닌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전공자들로 다양하게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장르를 초월한 예술적 합의를 시도하는 등 기존의 한국무용에 댄스스포츠와 재즈를 접목, 활력 있는 무용단으로서 야심에 찬 의욕을 다지고 있다. 오는 12월쯤 선보일 창단공연에는 한국무용과 현대무용을 비롯해 롬바, 차차차, 자이브, 심바, 파소도굴레, 재즈 등 10여 개의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성민주 회장은 "CDH무용단은 청주지역의 춤을 사랑하는 무용단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며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춤을 시도해 관객과 함께 하는 무용단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소식

이경달
매일신문 기자

국악연주단체 일본 공연

대구교사국악회, 대구청소년국악관현악단, 청소년국악예술단 등 3개 단체가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이들 단체들은 8월 18일 오후 7시 일본 대마도 카미쓰시마종합센터홀에서 연주회를 갖고 왕의 만수무강을 비는 궁중음악 〈수연장지곡〉과 창작국악관현악 〈방향〉, 사물놀이 협연으로 구성된 〈신모듬〉, 〈진도북춤〉 등을 선보였다.

두류 록 페스티벌

제2회 두류 록 페스티벌이 8월 26, 27일 대구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됐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주최한 이번 페스티벌은 국내 헤비메탈 음악의 전설적인 밴드 '블랙신드롬'을 위한 헌정 공연으로 마련되었으며 한국, 일본, 브라질 등 국내외 록밴드 15개 팀이 참가했다.

아프리카, 제임스, 십이지를 비롯해 페페 로페즈, 포갯 등 대구 밴드들과 대전의 락신, 뉴크, 부산의 신디케이트, 2002년 부산록페스티벌 대상팀인 서울의 허키클럽 및 슈퍼독, 세계적인 록페스티벌 '후지 록페스티벌'에 한국대표로 참가한 5인조 로큰롤밴드 오부라더스, 업기적인 노래 '떡볶이송'으로 잘 알려진 3인조 밴드 미스터핑키, 유럽에서 활동중인 브라질 밴드 마인드 플로우, 일본 밴

드 주라식제이드, 솔리튜드 등이 힘과 열정의 무대를 보여 주었다.

대구시립극단 상하이 공연

대구시립극단의 〈춘심홍로줄 스토리〉가 8월 12일, 13일 중국 상하이 홍교문화센터에서 공연돼 해외 동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춘심홍로줄 스토리〉는 한국의 고전인 춘향전, 심청전, 홍길동전과 셰익스피어 고전 〈로미오와 줄리엣〉을 기발하게 패러디해 묶어 낸 작품. 300석 규모의 공연장은 공연 시작 이틀전 이미 좌석이 매진되는 등 현지 교민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반영했다. 특히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온 부모들이 눈에 많이 띄어 2세들에게 고국의 문화를 체험케 하려는 재외 동포들의 열정이 엿보였다.

국립현대미술관 지역 순회 전시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술문화 대중화를 위해 마련한 지역 순회 전시프로그램 〈찾아가는 미술〉이 9월 7일부터 15일까지 대구 동구문화체육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우리 시대의 풍경', '색채의 향연', '매체의 다양성', '미술속 유머', '삶의 미술' 등 5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전국 총 50여 명의 작가들 작품이 선보였다. 대구문화예술회관 선정 〈올해의 청년작가 초대전〉 출품작가 9명의 작품도 함께 전시됐다.

대구박물관 김천특별전

국립대구박물관은 9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경북 김천특별전 〈영남 문화의 첫 관문-김천〉전을 개최한다. 김천의 역사와 문화재를 재조명하는 이번 전시에는 선사시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중요 유물 200여 점이 선보인다.

특히 최초 공개되는 국내 최고(最古)의 진언인 '백지묵서 준제진언' (白紙墨書 准提眞言)은 통일신라시대 갈항사 석탑이 세워진 756년 당시 제작됐을 것으로 추정돼 산스크리트어로 쓴 다라니경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것. 관세음보살 진언 중 하나로 26자로 구성됐으며 재앙을 막아주고 복덕을 기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소식

강동욱
경남일보 기자

2005년 경상남도 서예대전

2005년 경상남도 서예대전에서 영예의 대상은 행 초서 부문에 〈육유의 시〉를 출품한 강이관(43 창원시 상남동) 씨가 차지했다. 심사위원들은 "대상 작품은 묵직함과 함께 활달한 필의가 잘 묘사된 수작으로 평가된다. 묵직하면 답답해지고 활달하면 가벼워지기 쉬운 양면을 적절히 조화시킨 면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올해 경남 서예대전은 한글 한문(전서 현대서에 전각 예서 해서 행초서) 문인화 서각 부문 등에 걸쳐 총 855점의 작품이 출품돼 지난 3일 4일 이틀 동안 심사와 후보대회를 거쳐 대상 1점 우수상 4점 특선 68점 등 총 444점의 입상작을 뽑았다. 박원제 경남서협 회장은 "도내 서예인들의 작품 수준이 갈수록 향상돼 심사위원들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였다"는 말을 할 정도로 수준 높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준데 대해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참신한 선발을 위해 특선 작은 모든 심사위원들의 의견 일치로 선발했으며, 우수작은 복수로 추천해 공정한 대회가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1월 10일 오후 3시 경남도문화회관에서 있으며, 입상작 전시회는 11월 18일까지 경남도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경남청소년연극제 무학여고 최우수상 수상

9월 5일부터 7일간 진해시민문화회관에서 열렸던 제9회 경남청소년연극제 최우수상은 마산 무학여고의 〈데스데이〉가 차지했다. 9월 11일 폐막식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여성(극단 로얄씨어터 대표 배우) 씨는 "작품의 선택과정, 대본, 전체적인 조화, 연기순으로 심사위원들이 열띤 토론을 했다"며 "이번 청소년연극제에 출품된 작품들은 가정폭력, 물질만능주의, 교육문제 등 사회의 병폐를 고발하는 작품에서부터 청소년들의 고민과 우정을 소재로 하는 작품들까지 다양한 소재로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으며 방향 중에도 땀 흘려 연습한 학생들의 모습과 열정을 엿볼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남청소년연극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마산 무학여고는 오는 10월 26일부터 서울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열리는 제9회 전국청소년 연극제 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이다.

단체상 최우수상(경남도지사상)=마산 무학여고 <데쓰데이> 우수상(도교육감상 진해시장상)=진주 경해여고 <선생님도 길을 잃는다> 진해여고 <종이비행기> 장려상(진해예총 지부장상 교보생명 시장상)=김해여고 <방향하는 별들> 창원 명지여고<모스키토> 개인상 최우수지도교사상=조범규(마산 무학여고) 우수지도교사상=윤승덕(진주 경해여고) 박용범(진해여고) 최우수연기상=박수경(마산 무학여고) 우수연기상=최유진(진해여고), 김은실(진주 경해여고), 정영지(거제고), 박현애(김해여고), 박은실(마산 무학여고), 정다운누리(통영 충렬여고) 남설아(창원 명지여고)

경남사진대전 대상 <희망의 질주>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경상남도협의회(회장 박용덕)가 주최한 제14회 경남사진대전에서 정삼상(진주 하대동) 씨가 <희망의 질주>로 대상을 수상했다. 초대작가상에는 김삼경(진주)의 <목가>가 추천작가상에는 장기덕(양산)의 <삶의 현장>이 각각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임채열(창원) 씨의 <노모>가 차지했다. 이번 사진대전 심사는 지난 4일 창원 시청 회의실에서 열렸는데, 류경선(사협 부이사장), 박산백(경남 양산), 안희탁(대구), 김태진(부산), 이경래(전남 순천), 이영기(경남 진해), 임경훈(경남 진주) 씨 등 7명의 심사위원들이 총 385점의 공모작 가운데 173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위원장 류경선(중앙대학교 사진학과 교수) 씨는 "타시도 사진전에 비해 응모된 작품 수준이 대체적으로 높았다"며 "디지털 포토샵으로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손을 본 작품에 대해서는 상권에서 제외시킬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수정, 보완 한 작품은 인정했다"고 심사내용을 밝혔다. 이번 사진대전에는 김병주(마산) 씨의 <모성애> 등 17작품이 특선을, 입선에는 광진성 한용상 김도주 김성운 여진모 오윤복 등의 작품 154점이 선

정됐다. 한편, 수상작은 10월 4일부터 9일까지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전시되며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시상식도 마련된다.

문신 작품 <발렌시아 비엔날레> 초청 전시

마산 출신의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의 혼이 서린 작품들이 제3회 스페인 발렌시아 비엔날레(Valencia Biennale)에 초대되어 세계인들에게 선보인다. 물(Water)을 주제로 9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리는 제3회 스페인 발렌시아 비엔날레는 스페인 제3의 도시 발렌시아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미술행사로 전 세계 유명 예술가 24명이 참여한다. 이들 중 문신의 대표적인 조각 작품인 흑단 5점과 스테인리스스틸 작품 2점, 와이어(불빛 조각) 1점, 브론즈 10점 등 총 18점이 전시되는 것이다.

또 제3회 발렌시아 비엔날레행사에는 문신 10주기 전을 각각 기획 전시했던 마산시립 문신미술관, 숙명여대문신미술관, 가나아트 갤러리가 9월 20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행사에 참석하는데 마산문신미술관은 학예사 2명, 공무원 2명, 숙명여대 문신미술관은 학예사 2명, 마산 촬영팀 3명, 최성숙 명예관장 등이다.

비엔날레에서의 전시와 행사 참석과 관련해 최성숙 명예관장은 "올해가 10주기인 만큼 발렌시아 비엔날레에서의 전시는 그 의미가 더욱 깊다"며 "지난 97년 프랑스 가르젤드 루브르 박물관에 초대돼 작품 전시를 한 이후 두 번째 갖는 전시회이다. 이러한 전시를 통해 그의 몸은 저 세상으로 가고 없지만 예술혼은 영원히 살아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전시에 대한 소감을 말했다.

2007 세계연극총회 마산서 간담회 열려

지난 7월 27일 모나코에서 열린 2005년 IATA 세계연극총회에서 차기 2007세계연극총회가 창원과 마산에서 개최기로 결정된 가운데 9월 8일 오후 4시 마산 아리랑호텔에서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 하진규 사무총장과 경남도, 세계연극협회 한국본부 이상용 회장, 마 창시 문화관계자, 시 도의원, 원로인들이 참석해 2007 세계연극총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간담회가 마련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창녕 출신인 하진규 사무총장은 "2007년 세계연극총회를 준비하기에 2년이라는 기간이 많이 부족하다"며 "지금부터라도 행사에 관련한 조직위 구성 등 빠르게 움직여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진규 사무총장은 세계연극총회를 내실 있게 마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확보가 시급하며, 행사관련 제반시설 확보, 관객유치를 위한 홍보대책 실질함을 주장했다. 한편 세계연극총회는 2년에 한 번씩 연극 축제와 겸하는 행사로, 2007년 세계 연극총회 및 연극축제는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20일간 창원 컨벤션센터와 성산아트홀 그리고 마산 MBC홀 등에서 열리게 되며, 아시아 지역은 한국이 처음이다.

부산소식

고 기 화
국제신문 기자

제10회 부산국제영화제

제10회 부산국제영화제(PIFF) 개막작은 허우사오시엔 감독의 <쓰리 타임즈>, 폐막작은 황병국 감독의 <나의 결혼원정기>로 확정됐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10월 6일~14일 열리는 제10회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은 모두 73개국 307편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PIFF를 통해 세계에 첫 선을 보이는 월드 프리미어는 61편이며, 자국을 제외한 해외 첫 상영을 뜻하는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28편, 아시아 프리미어 87편이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아시아영화의 창, 새로운 물결, 한국영화파노라마 등 공식 9개 섹션과 함께 '아시아영화 새 지도 그리기' 'APEC 특별전' 등 6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한편 영화제 측은 '10년을 맞은 PIFF 성장의 일등공신은 관객'이라는 판단 아래 관객과 하는 행사들을 다양하게 마련한다. 폐막작 상영이 끝난 뒤 관객 5,000여 명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폐막파티를 열고 해운대 일원에 관객카페를 꾸밀 예정이다.

해외영화인 대거 초청되는 제10회 PIFF

제10회 부산국제영화제에 해외영화인들이 대거 초청된다. 개막작 <쓰리 타임즈>의 허우사오시엔 감독과 중국 스타 창첸이 참석하며 <지그재그 3부작>으로 유명한 이란 거장 압바스 키아로스타미와 <성냥공장 소녀>로 알려진 폴란드 감독 아키 카우리스마키는 뉴커런츠 섹션의 심사위원으로 부산을 찾는다. 또 <요리사 도둑 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 정부>로 유명한 영국 감독 피터 그리너웨이와 일본 폭력 미학의 거장 스즈키 세이준은 핸드 프린팅에 참여하며, 홍콩의 스탠리 쿵(關錦鵬) 감독과 일본의 사부 감독, <목인의 신



부)로 국내에도 알려진 중국 감독 황지엔신과 대만 감독 차이밍량도 내한한다. 이밖에 <신화>의 청룽과 대만의 인기스타 비비안 수, <아무도 모른다> 칸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던 소년 배우 아기라 유아 등도 게스트 명단에 포함됐다. 영화제의 프리마켓인 PPP(부산 프로모션 플랜)에는 <메이드 인 홍콩>의 프루트첸과 <열대병>의 태국 감독 아핏차퐁 위라세타쿤이 참석해 투자자를 찾는다.

고 이만희 감독 회고전도 열려

제10회 부산국제영화제(PIFF)는 영화제 기간 중 한국영화회고전 행사로 <이만희 감독 회고전>을 마련한다. 조영정 PIFF 한국영화회고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고 이만희 감독은 독특한 자신만의 영역을 표기하는 작가영화와 대중적인 욕망의 지표를 표현하는

장르영화의 접점에서 서 있다”고 선정사유를 밝혔다. 이만희 감독은 1960년대 초 한국영화계에 등장했다. 이 때는 한 해 제작되는 한국영화 편수가 100편을 넘어서던 시점이었다고, 영화가 산업의 단계로 진입하는 시기였다. 이만희는 대중의 정서와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규모 예산이 필요했던 전쟁영화, 새롭게 등장한 공포영화, 흥행이 수월했던 멜로드라마, 유행을 탔던 문예영화 등을 모두 섭렵했다.

이 같은 장르영화로 대중과 호응하면서 그는 작가 정신, 인간에 대한 탐색, 장인의 태도를 잃지 않고 자신만의 영화세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화제 기간 열릴 이번 회고전에는 <돌아오지 않는 해변>(1963) <군 번없는 웅사>(1966) 등 10편이다. PIFF측은 이만희 감독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는 <만추>를 상영하기 위해 백방으로 다녔으나 북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됐던 필름의 행방 자체가 묘연해 단념했다. 올해는 그가 세상을 뜬지 30년이 되는 해이며, 제10회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하는 10월 6일은 그의 생일이다.

부산 범어사 개산대제 문예대제전 개최



범어사는 개산(창건일) 1327주년을 맞아 근현대사 속 범어사의 의미와 역사를 재조명하고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한 ‘개산대제’(開山大齋) 문예대제전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간 개최한다. 해인사, 통도사와 더불어 영남의 3대 사찰인 범어사는 의상대사가 당나라에서 귀국한 뒤 화엄사상으로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 신라 문무왕 18년(678년)에 세운 해동의 화엄 십찰 중의 하나로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올해 개산대제는 ‘문 없는 문을 열다’를 주제로 정했다.

개산대제 첫 날인 내달 1일 진행되는 학술회의에서는 근대불교의 지향과 굴절 근대불교 범어사의 사격과 선찰대본산 한말, 일제시기 범어사의 사회운동 동산 선사의 선사상 등을 다룬다. 범어사는 또 이번 행사기간 불교 문화를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대중문화로 표현한다. 불교 퀴즈 프로그램인 ‘도전 범종을 울려라’, 타악 뮤지컬 ‘아단 법석’, ‘달마 그리기 퍼포먼스’, ‘범어 실버가요제’, ‘불무도 시범’ 등을 통해 불교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또 산사 영화제, 사찰 음식 시연, 야생화 심기, 의상대사 백일장 및 사생대회 등 시민 등 시민 참여 문화행사가 마련된다. 마지막 날에는 불교의 전통 장례법인 다비의식의 시연이 있다. 여기에서는 호국영령들과 군인, 경찰, 소방대원 등 국가와 시민을 위해 순직한 이들의 위패를 다비식 때 화장할 예정이다.

광주소식

박진현
광주일보 기자

제2회 한·중 수묵화 교류전

동양예술의 뿌리인 수묵화가 현대적으로 어떻게 변용되고 계승되어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뜻깊은 전시회가 열린다. (재)외재미술관은 중국 심천 관산월 미술관과 함께 오는 10월 16일까지 <한·중 수묵화 교류전-이상과 현실>을 갖는다.

올해로 2회 짝인 이 전시회는 한국과 중국 수묵화단의 화두인 ‘수묵화의 정체성’과 ‘현대화’에 대한 답을 읽어낼 수 있는 자리다. 올해는 한국 18명, 중국 22명 등 모두 40명이 참여해 전통의 수용과 혁신이라는 공통과제를 진지하게 모색한 작품들을 보여준다. 중국작가들은 심천시의 공공미술기관 가운데 하나로 지난 98년부터 국제수묵화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는 심천화원의 추천으로 구성됐다.

등사오미 첸준유 송유밍 구시유안 웬구안 가오군츄이 판시리양 창지양 시웨이 하이 안 류쥬지엔 리양관등 30~70대까지 다양하다. 한국에서는 강경구 유근택 정종미 박병춘 오숙환 이종목 정용국 허달재 김천일 허

진 박종석 윤남웅 이형우 이구용 박홍수 허
임석 강금복 조병연 씨 등이 참가한다.

광주 · 전남 최초 종합문예지 '문학들' 창간
지역을 연고로 출발한 종합문예지 「문학들」
(발행인 송광룡) 창간호가 최근 출간됐다.
편집진으로 나종영 고재종 시인이, 편집위원
으로 채희운 이화경(이하 소설가) 임동확(시
인) 김형중(문학평론가) 씨가 참여했다. 편
집장은 전동진(시인), 발행인은 송광룡(시
인) 씨가 맡았다. 편집 고문으로 이명환 송
기숙 한승원(이하 소설가) 범대순 김준태 김
희수(이하 시인) 자문위원으로 윤기현(동
화) 나해철 이영진 황학주(이하 시인) 박혜
강(소설가) 등이 활동한다.

이번 창간호 권두 산문에는 박상룡 씨의 <가
장 무섭고 두려운 것은 정서의 소비>를 비롯
해 기획 특집 '생성의 사유와 한국문학', 소
설가 조정래 씨와의 대담, 신작작품, 광주전
남현대문학사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꾸며졌
다. 기획특집에는 임동확 시인의 '동일성 혹
은 분열의 근대시학에서 차이와 감응의 생성
시학으로-생성문학론의 탐색과 가능성' 과 이
성희 씨의 '동아시아 예술의 생성론적 해명',
김상일 씨의 '생성의 철학'을 수록해 다양한
담론과 현상에 대한 내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조정래 씨와의 대담에는 문학론과 작가
의 역할,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집필 계획, 이
고장 출신의 신인들에 대한 당부와 격려, 문
화중심도시로 재도약하는 광주에 대한 조언
과 기원 등이 소개됐다.

박금자 발레단의 <춘향> 공연

지난 9월 5일~6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
장에서 공연돼 호평을 얻었던 박금자 발레단
의 창작발레 <춘향>이 13일~14일 광주공
연을 가졌다. 이 공연은 박금자 발레단과 국
민대학교가 '예술분야 산학협동'을 내걸고
제작한 작품으로 그간 <장희빈>과 <심청전>
등 한국적 창작 발레를 제작해온 박금자 씨
가 예술감독을, 그의 딸 문영(국민대 교수)
씨가 안무를 맡았다.

지난 1999년 초연됐던 이 작품은 영원한 고
전인 <춘향전>을 바탕으로 '고전과 현대의
만남'을 접목시켰다. 총 2막 5장으로 구성

돼 있으며 '이별의 장'으로 이름 붙은 1막 2
장에서 이도령과 춘향이 선사하는 이별의 2
인무, 춘향의 솔로가 감상 포인트다. 춘향 역
에정은정, 이도령에 오윤환 등 박금자 발레
단원과 국민 댄스 시어터 단원 등 모두 30여
명이 출연했다.

임지형 & 광주현대무용단 전국무용제 대상

9월 13일 폐막된 제14회 전국무용제에서
임지형 & 광주현대무용단이 대상(대통령상)
을 차지했다. 임지형 & 광주현대무용단은
이숙영 안무의 <레딩턴>을 공연, 심사위원
단(위원장 이은주 인천전통대 교수)로부터
"구성과 안무는 물론 무대장치, 조명, 의
상 등 모든 무대요소가 훌륭하게 어울리면
서, 통상적으로 드러나는 지역무용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평가와 함께 상금 2천 만 원
을 받았다.

개인상 부문에서는 안무상에 최영란(대전),
연기상에 정정환(대전) 김진미(충북) 조대
식(경기) 이경화(광주) 이선민(대구) 고희숙
(제주), 무대기술상에 이나구(인천)씨가 각
각 뽑혔다. 전국무용제는 한국문화예술위원
회(구 문예진흥원)와 한국무용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창작무용 경연대회로, 지역예선을
거친 전국 15개 시·도 대표단체가 지난 5
일부터 제주 문예회관에서 경연을 펼쳤다.

전북소식 - 도 휘 정 전북일보 기자

전주한지의 가능성을 찾아서

전주한지산업이 사그라지고 있다.
수요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고개
를 돌리면 더 큰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 그
가능성을 도내 대학생들이 찾아나섰다. 서화
인구가 3천 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중국.



전북대 중문과 학생들이 전주한지를 들고 중
국의 서화가들을 만나고 돌아왔다. 지난 여
름방학 동안 '전북대 세계교육기행'으로 중
국 수도 북경과 서화도시로 유명한 남경, 상
해, 항주를 다녀온 전북대 중어중문학과 2학
년 김병은 박정은 최영진 이유리 씨. '사인
행' (四人行)이란 이름으로 거대한 중국 시장
과 맞선 이들은 "중국 서화가들은 서화용지
인 선지의 수명이 짧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며 "무엇보다 전주한지의 중
국 진출을 위해서는 가격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다양한 품질과 두께의 한지
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인행'
이 만난 서화가들은 8명. 모두 중국에서 일
가를 이루고 있는 이들이다. 중국의 서화가
들은 "중국선지에 비해 견강하면서도 질박
하고 부드러운 전주한지에 믿음이 가지만,
가격이 비싸 한지의 일반시장 진출은 아직
이른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사인행'은 '남경에서 방문한 황돈 선생은
우리나라의 서예잡지인 '까마'를 구독 중이
었다"며 "우리나라의 유명한 서예잡지나 중
국과 일본의 서예잡지에 중국어나 일본어 등
으로 전주한지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것도 해
외 시장 공략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
였다.

<어제와 오늘-한국 민중 80인의 사진첩>의 주인공들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이 인기를 얻고 끝
났지만, 이순신 밑에서 싸우다 죽은 졸병들
삶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의 삶이 진짜 살아있는 역사가 될 것입니
다." 전북대 장성수 교수의 인사말에 비로소
굳어있던 얼굴들이 피친다. 남들 눈에는 하
찮게 보일 수도 있지만 온 힘을 다해 살아온
삶. 누군가에게 주목받는다든 것이 어색하게

만 느껴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랜만에 허리를 폈다.

9월 7일부터 25일까지 <어제와 오늘-한국민중 80인의 사진집>을 연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최효준)과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단장 박현수)이 '영산강 줄기와 호남선을 따라서'에서 소개된 김제 광활면과 군산 선양동의 '20세기 민중생활사의 증인' 15명을 초대했다. 김제 광활마을의 양옥순 씨(76). 간장독, 된장독, 고추장독, 멸치젓독, 애지중지하는 장독들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크게 한 장 빼달라"고 장교수와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박현수 단장은 "이 시대의 증인들에게 귀를 기울여 백년 세월의 생활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해 한국 근현대사를 새로 쓰려고 한다"며 "20세기와 함께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왔다가 이제는 사라지고 있는 사진을 통해 가까운 옛날 20세기를 해석해 보자"고 말했다.

광복 60주년 다시 찾는 군산항



"친일을 한 할아버지를 둔 손자의 심정과 비슷할 겁니다. 채만식이 친일 문인이라는 것이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착잡하지요." 역센 풀이 무성하게 자라난 묘 앞에서 문인들은 쓸쓸해 보였다. 풍족하게 원고지를 쌓아놓고 글 써보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었다는 백룡 채만식(1902~1950). '친일인명사전 수록 1차 대상자' '채만식문학상 유보' 등 세월이 흘러도 씻겨지지 않을 친일 행적은 후배 문인들에게 아리한 아픔으로 전해진다. 전북민예총(회장 송만규)과 전북작가회의(회장 임명진)가 마련한 <광복 60주년 다시 찾는 군산항>이 9월 3일과 4일 군산과 옥구 일대에서 열렸다. <제2회 전북민족예술제> 및 <8·15광복60주년 전북문화제>의 마지막 행사인 이번 기행은 수탈의 현장 군산을 기행하

며, 그 공간과 함께 한 문학을 되돌아 보는 자리다.

군산 출신 소설가 이준호 씨가 이끈 <채만식 문학기행>에는 임명진 최동현 안도현 정철성 최영 김종필 김광원 공선옥 김지은 김병용 유강희 한정화 박태건 김다비 경중호 윤석정 이재규 등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글을 쓰는 문인들이 함께했다. 집필기록과 묘소, 생가터, 문학관, 콩나물고개 등을 둘러보는 것은 채만식 문학의 온기를 더듬는 일. 정철성 전주대 교수는 "쌀 수탈 유적의 보존을 두고 논란이 있지만, 가능하면 역사로 남겨놓고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고 말했다. 최동현 군산대 교수는 "군산이란 도시는 일본의 수탈 야욕에 의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라며 "근대 민족의 모순이 얽히고 설킨 곳"이라고 설명했다.

'민족의 한이 얽히고 설킨 곳' 군산. 전북민예총과 전북작가회의 회원들은 해망동 주차장에서 <광복 60주년 기념 해원 상생 용왕굿>을 벌였다. 이 땅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맺힌 원한을 풀고 잘 살아 보자는 모두의 마음이었다.

호남오페라단 <서동과 선화공주>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오페라로 올리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 호남오페라단(단장 조장남). 가장 한국적인 오페라를 만들겠다는 남다른 사명의식으로 튀는 행보를 보여온 호남오페라단이 9월 11일 또 한편의 '한국오페라'를 선보였다. 창작오페라 <서동과 선화공주>. 익산 금마를 배경으로 한 백제 무왕 서동과 선화공주의 설화를 담은 작품이다. <서동과 선화공주>는 <녹두장군> <춘향> <요한루갈다>에 이어지는 호남오페라단의 한국적인 오페라 만들기 작업의 연장이다. 소재도 지역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극의 형식도 색다른 시도를 했다. 서양의 대표적인 음악극 오페라를 판소리가 이끌어낸다. 소리꾼이 막을 열고 주요 대목마다 해설을 하는 등 극을 주도했다. 주요 장면 춤도 한국무용수의 독무를 내세우는 등 양악과 국악의 접목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했다.

한편 호남오페라단은 한국적인 소재를 오페라로 선보이기 시작한 지난 2002년부터 지

난해까지 연속 문예진흥원의 최우수창작오페라로 선정됐다.

제주소식

강태유
제민일보 기자

2005 용연아밤제현축제

"용연에 배 띄워라, 밤 정취에 취해보게" 제주의 절경으로 꼽은 영주 12경. 그 중 하나인 용연아밤(龍淵夜泛)이 있다. 용연아밤은 조선시대부터 기암벽봉 사이의 맑은 물에 비친 달을 보며 풍류를 즐겼던 것으로 달빛이 교묘하게 용연을 비추면 옛 선비들이 그곳에 배를 띄워 밤정취에 취했다. 배에 겨놓은 등불들이 밝은 달빛과 어울려 아름다운 밤경치를 이뤘고 이 밤배놀이를 일컫는다.

이를 재현한 <2005 용연아밤제현축제 용연선상음악회>가 제주시 주최·제주문화원 주관으로 지난 27일 오후 8시부터 깎아지른 절벽과 울창한 숲, 깊은 연못이 어우러진 제주시 용연계곡에서 열렸다.

이날 용연선상음악회의 서막은 풍물굿패 신니락이 열었다. 신니락은 올해 초 복원된 용연 구름다리에서 원초적인 리듬으로 모듬북 연주 <용연 태고의 북소리>를 선사, 관람객들의 탄성과 박수 갈채를 이끌어 내면서 음악회의 문을 힘차게 열었다. 제주탐라예술단의 <선왕 굿 놀이>와 놀이패 한라산의 <영감 놀이>가 뒤를 이어 관람객의 안경을 기원했다. 이날 음악회의 백미는 출연자가 '테우'를 타고 용연 한기운데에서 벌인 공연. 신은숙 씨의 대금산조에 이어 조상현 명창이 <사철가>와 판소리 <적벽가> 중 '적벽대전' 대목, 김정희 씨의 <살풀이> 등 중요무형문화재 공연이 잇따라 펼쳐져 관람객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전>

천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제주에 왔다. 경향신문사가 주최하고 CV MAX가 주관하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전>. 그가 살았던 르네상스시대 당시 재료공학의 뒷받침만 있었다면 많은 발명품들이 실용화될 수 있었을 정도로 대단한 발명품들이 수북했는데 이번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시되고 있는 발명품들은 그가 남긴 비밀 코덱스(발명품들을 모아 놓은 책)를 연구해 현실로 재현한 것들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전>이 지난 9월 1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개막, 내년 3월까지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와 같은 명작을 남긴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사상가, 건축가, 해부학자, 과학자, 발명가로서의 면모를 두루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전시회는 헬리콥터, 낙하산 등 이카루스처럼 하늘을 훨훨 날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구체화한다. 비행 존(zone)과 자동차, 자전거 등의 개발에 이론적 기초가 되었던 다양한 발명품이 전시되는 자동차·기기 존(zone), 현대 전쟁에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의 대표, 전자 등 발명품이 전시되는 전쟁 존(zone) 등 모두 7개 존(zone)으로 구성, 테마별로 구성된 전시장을 돌아보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꿈과 이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함덕 한모살문화학교' 개설

상대적으로 빈약한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과 문화예술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함덕리와 제주민예총이 놓어민 대상으로 생활 친화적 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덕 한모살문화학교'를 개설하기로 한 것. 제주민예총(지회장 김수열)과 함덕리(이장 고두철)는 26일 함덕리사무소 회의실에서 한모살 문화학교 업무 협약식을 열고 지역문화를 살리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에서는 거의 모든 문화시설이 제주시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문화예술공간을 놓어촌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역과 문화예술단체가 함께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례로 기록된다.

한모살문화학교는 함덕리에서 건물을 제공하고 제주민예총이 3년 간 운영을 책임지며 이후에는 함덕리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11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운영위원장은 고두철 함덕리장이 맡았다. 문화학교가 들어설 건물은 함덕농협 창고. 10월 말까지 건물을 리모델링, 사무실과 풍물과 미술 등의 개인 연습실, 일상적인 문화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공연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민예총은 연행, 미술, 음악, 문학, 사진 등의 장르를 활용, 문화학교를 개설해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나갈 계획이다. 또 제주민예총의 다양한 장르의 분과활동을 지역 자생조직과의 실질적 연대를 통한 문화예술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제8회 이중섭예술제

암울한 시대에 불꽃같은 짧은 삶을 살다 간 화가 이중섭(1916~56)을 기리는 제8회 이중섭예술제가 지난 9월 8일과 9일 이틀간 이중섭미술관(서귀포시 정방동 소재) 일대에서 펼쳐졌다. 서귀포시가 주최하고 (사)한국예총 서귀포·남제주군지부 주관한 이중섭예술제는 8일 오후 개막식에 이어 전도 학생 미술실기대회, 깃발미술, 관악연주(프라임타악기양상블), 김복희 무용단의 퍼포먼스 <달과 까마귀-이중섭이야기>, 풍물, 페이스 페인팅 등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다. 개막 하루전인 오늘(7일) 오후 4시 서귀포 KAL호텔 크리스탈룸에서는 중앙인사 28명, 역사문화대학 참가자 30명, 도내 문화예술단체 임원 118명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 이중섭과 서귀포' 세미나가 열렸으며 이중섭의 오랜 친구이자 화가인 김병기 씨가 세미나에서 '다시 쓰는 이중섭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중섭의 예술과 삶을 이야기했다.

제14회 전국무용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무용협회가 주최하고 제주도와 한국무용협회 제주도지회가 주관한 제14회 전국무용제가 지난 9월 13일 광주현대무용단(광주)의 <레밍, 턴>이 대상(대통령상)을 거머쥐며 화려한 막을 내렸

다. 전국 무용인들의 춤의 제전인 제14회 전국무용제는 '평화의 춤은 파도를 넘어'를 주제로 지난달 9월 5일 개막, 13일까지 9일간 제주도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렸다.

이번 전국무용제는 지난 5일~12일 제주도 문화예술회관에서 15개 시·도 대표팀이 참가한 가운데 자존심을 내건 경연을 벌였다. 금상(문화관광부장관상·행정자치부장관상)에는 최영란 무용단(대전)의 <천년가약>과 김진미 무용단의 <아이>가 각각 차지했다. 개인부문에서는 단체상 금상을 수상한 최영란무용단의 <천년가약>의 안무자 최영란 씨가 안무상(제주도지사상)을 받았다. 또 개최지인 제주에서는 강지희무용단의 <불휘>가 은상(제주도지사상)을, 고희숙 씨가 연기상(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안았다. 대상에게는 20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주어지며 금상·은상에게는 각각 1000·5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개인부문 안무상·연기상에는 각각 2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무대기술상·음악상에는 100만원씩의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됐다.

단체상 대상(대통령상) = 광주현대무용단(광주) <레밍, 턴> 금상(문화관광부장관상·행정자치부장관상) = 최영란 무용단(대전) <천년가약>·김진미 무용단의 <아이> 은상(제주도지사상·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한국무용협회 이사장상·제주도의회 의장상) = 강지희무용단(제주) <불휘>·김동은무용단(경북) <마지막 비상구>·광명조식무용단(경기) <남아있는 내일>·송춘무용단(전남) <그리운 연리지>

개인상 최우수연기상(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 전정환(최영란무용단·대전) 연기상(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 김진미(김진미무용단·충북) 조대식(광명조대식무용단·경기) 이경화(광주현대무용단·광주) 이선민(배경진발레단·대구) 고희숙(강지희무용단·제주) 무대기술상(한국무용협회 이사장상) = 이나규(최경주무용단·인천)

『文化藝術』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다 앞서가는 잡지, 질 높은 잡지, 알찬 잡지를 만들기 위해

『文化藝術』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부드러운 시선보다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적해 주시면 검허하게

‘좋은 잡지’ 라는 결실로 보답하겠습니다.

『文化藝術』에 의견을 주실 분을 위해서

- 원고마감은 매월 15일입니다.
- 원고는 우편이나 FAX, E-Mail 또는 본원 홈페이지(게시판)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원고접수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또는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소 : 우 110-766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3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홍보미디어팀
- 전화 : 02-760-4568
- FAX : 02-760-4780
- E-Mail : magazine@arko.or.kr
- 홈페이지(게시판) : www.arko.or.kr

원고가 『문화예술』지에 게재되는 분께는 『문화예술』지 6개월분 무료구독 기회를 드립니다.